

교회 목표

신뢰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주간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청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6 충청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기도하라! 새벽을 깨우는 영의 외침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엡 6:18)

복음을 위한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은 여름 태양의 열기만큼 뜨겁습니다. 어제(5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중·고등부 단기 선교사들이 담대히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순간에도 120여 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모르는 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휴가를 떠나는 이 때에,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한 이들을 오�히려 더욱 뜨거운 선교지의 열기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 9:29)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새벽기도회에 더욱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피곤하니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공예배와 집회 및 모임에도 빠지지 말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사단은 지금도 신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꾀계와 술수를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넘어지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기도의 십자가를 지길 바랍니다. “바나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엡 6:11).

수해지역 방문 및 구호품 전달

지난 주간 큰 수해지 가운데 하나인 강원지역을 방문하여 쌀, 부식, 이불, 휴대용 가스버너, 연막소독기 등 가장 시급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수해를 당해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을 향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전하고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쁜 일은 단순한 구호품물품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위한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위임목사님 동정

위임목사님께서 휴가중입니다.
모든 일정과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복음

홍정 (마 26:14~15)

‘가롯 유다!’ 그는 현세의 흐름을 아주 민감하게 느끼고 대처하는 신속한 현실주의자였다. 그는 제바바에게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자 ‘온 삼십’에 팔아 넘겼다(15절). 후일에 예수의 다른 제자인 ‘요한’은 그를 도적이라고 말하며(요 12:6), ‘누가’는 예수와의 입맞춤에 대하여 세상에서 가장 교활하고 악독한 연극이라고 시사했고(눅 22:48), ‘마태’ 역시 그의 본질에 대한 예수의 평가를 기록함으로써 그의 패역함을 밝혔다(마 26:24).

‘유다’는 자신의 의지와 꿈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모두에게 신뢰를 받았기에 회개 일까지 맡았다. 그러나 그에게 사단이 들어갔고, 그는 예수를 팔아 넘길 기회를 찾는 자가 되었다(눅 22:3~6). 그는 자신의 ‘스승’을 놓고 세상과 홍정하는 자였다. 또한 ‘진리’를 놓고 세상과 홍정하였으며, ‘구주’를 놓고 세상과 홍정하는 가장 이기적이고 자신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 향유를 쫓는 여인에게 분노하던 철저한 현실주의자요 계산적이었던 ‘가롯 유다!’ 그는 스승을 팔아 넘긴 죄책감마저도 세상과 홍정하고 말았다. 베드로처럼 ‘회개’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멸의 문으로 들어가 버렸다(마 27:4,5). 그리고 그가 홍정의 대가로 받은 온 삼십은 ‘피 땀’을 사는 값이 되었다(마 27:7,8). 그는 세상으로부터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마귀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홍정을 하고 말았다(눅 11:12,13).

그러면 우리는 ‘유다’를 비난할 만한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유다의 홍정’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지와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자면 그러한 홍정은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에 이르게 하신다(딤후 2:4). 우리로 하여금 ‘유다’처럼 멸망의 길을 걷지 말고 회개함으로써 홍정의 삶에서 떠나 구원의 길을 걷기 원하신

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기다리신다(벧후 3:9; 살전 5:9).

‘가롯 유다’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값지게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홍정을 했는지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말하였다(마 27:4).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그의 들어킴은 도덕적 양심의 가책일 뿐이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참된 회개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저지른 홍정의 값을 지불받게 될 것이다(렐 30:14).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첫째 아들, 그리고 자신의 부와 명예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멀리하는 오늘날의 목회자들! 이들은 모두 구원을 세상에 값싸게 팔아 넘기는 어리석은 홍정(trade)의 증극자들이다.

진실로 온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부요함을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전 5: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 세상과 홍정하며 선뜻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는 자들은 진실로 얼마나 허무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인가! 분명히 그것은 죄이며, 그러한 홍정에 빠진 자들은 후일에 아무 것도 없는 빈 손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일찍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셨다(요 12:25). 하지만 자기의 살아갈 날들을 위해, 또는 권력의 유지를 위해 예수를 넘겨준 빌라도(요 19:12)! 그는 세상과 홍정하여 예수를 넘겨준 대가로 자기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먹은 꼴이 되었다. 또한 예수를 넘겨 줌으로써 예수께서 부어하신 영혼의 가치를 값싸게 만든 자가 되고 말았다. 분명히 기억하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영생)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막 8:36)

(김성관 위임목사)

DO NOT LOSE WHAT IS IMPORTANT

(15) Then He said to them, "Beware, and be on your guard against every form of greed; for not even when one has an abundance does his life consist of his possessions." (16) And He told them a parable, saying, "The land of a certain rich man was very productive. ... (20) "But God said to him, 'You fool! This very night your soul is required of you; and now who will own what you have prepared?' (Luke 12:15-20)

Nowadays, our culture views the rich man in today's Bible passage as a success. He was a hard working man who prepared well for his retirement, but we must remember he lost the most important thing. There are many good sermons, but most preaching has to do with happy themes, like the blessings of the Christian life and the prospect of happiness in this world. There are few sermons concerning heavenly things. It is hard to find preaching on sermons like this. We must face the cost of being lost, and we must warn the lost to escape hell. This rich man was prosperous, but he was also pitiful. He was temporarily content, but eternally regretful. Why did this rich man lose it all?

Many people gain important things, but they lose the most important thing. We have to think about earth and heaven. We have to believe in the eternal kingdom of God and eternal hell. Jesus gives us a warning, "Beware, and be on your guard against every form of greed; for not even when one has an abundance does his life consist of his possessions"(v. 15). We do not often use the word greed; instead, we like to use the phrase, "got to have". We confuse need with want. The rich man got what he wanted. He was diligent and did not cheat anyone. His prosperity came from his own land, and nature never lies, but God said this man was a fool. In my life, I have seen many good people like this rich man, but in the end, they all regret their choices.

The rich man only calculated in earthly, not heavenly, currency. The Bible tells us that his land was "very productive"(v. 16). His farm was extremely profitable, so his investment was good, which made him very happy. In this world, no matter what we invest in, we always take a risk. There could be heavy rains or no rain at all; we just do not know what is going to happen. Investment is always risky. This rich man probably experienced little peace. He had to be nervous, wondering and worrying, about his assets. As a Christian, we not only face the difficulties of living in a sinful world, but also constant attacks from the devil, especially over earthly things. We suffer great risks, but can keep peace knowing that God's love overcomes everything. Paul wrote, "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or principalities, nor things present, nor things to come, nor powers, nor height, nor depth, nor any other created thing,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our Lord"(Rom. 8:38-39). We only triumph through our faith in Jesus Christ because every earthly thing is faulty, but every heavenly thing is perfect.

Everything the rich man held was limited. His thought process about this is very interesting. Listen to him, "And he began reasoning to himself, saying, 'What shall I do, since I have no place to store my crops?' Then he said, 'This is what I will do: I will tear down my barns and build larger ones, and there I will store all my grain and my goods. And I will say to my soul, "Soul, you have many goods laid up for many years to come; take your ease, eat, drink and be merry"(v. 17-

19). His conversation with himself is all about "I" and "my". I will do this, I will say that, and all is my, my, my. He says "I" six times and "my" three times in these verses. He is so proud of "I" because he thinks he has earned everything himself. The problem with his reasoning is that "I" has to die sooner or later. Jesus said that if we want to follow Him, we have to deny ourselves. There is no praise or repentance in I, I, I---Actually, his earthly success appears to give him more problems. He is not sure what to do with his increased wealth. His mind is so busy contemplating strategy that he does not have room to read Scripture or think about God. His time is so spent on other things that he has forgotten God and lost his own soul. He focuses on his own well-being, building bigger barns, but not on the welfare of the poor. Everything he prepares and everything he gains is going to perish. Only faith in Jesus Christ is non-perishabl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Jn. 3:16). All of the rich fool's time and labor were in vain, perishable, not worth anything.

The rich man's hope was limited to the horizon of this earth. He said to his soul, "Soul, you have many goods laid up for many years to come; take your ease, eat, drink and be merry"(v. 19). "But God said to him, 'You fool! This very night your soul is required of you; and now who will own what you have prepared'"(v. 20)? Indeed, the rich man had a retirement plan. He looked to the future with confidence, but his plan was flawed. He only thought about taking it easy with food and entertainment. He neglected to plan for eternity, and that evening he faced death. This is a very sad story. Death called him and the grave opened and motioned for him to come in. His hell was waiting to welcome his foolishness. He lost it all! He lost his earthly wealth, leaving it behind for his relatives to fight over, and he lost his own soul. Jesus said that our soul is more important than the whole world, but the saddest thing is people do not listen. They continue to plan for earthly retirement, and not eternal life.

Most people want to be like this rich man. They want the comfort and confidence that comes from financial security. The sad thing is that they want it for themselves, not Jesus. Everything that our eyes call mine, mine, and mine is only temporary and limited. Those who seek gain for themselves are very poor for God. My dear friend, we must humbly come to Jesus Christ. We must place our treasures in heaven. I want you to be a true rich person. How rich are you now? Do you have Jesus Christ? Look at your heart. What do you find? Is everything labeled "mine" or "Jesus"? Please invest your life in eternal things. I want you to get the eternal ticket. Come to Jesus Christ and gain eternal treasures. Those who trust in Jesus lay up real riches in heaven. How big is your heavenly treasure? How sound is your eternal plan? God's grace is a gift that He wants to give to you. Please accept it now, so that you do not lose what is important. 🙏

다음 주일 설교

중요한 것을 잃지 말라

⁽¹⁵⁾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¹⁶⁾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

⁽²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눅 12:15~20)



김성완 목사

현재 우리의 문화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를 성공한 사람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노후를 잘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 이 세상에서의 행복 등과 같은 즐거운 주제들을 다루는 설교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늘에 속한 것에 관한 설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잃어 버린 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옥을 피하려면 잃어 버린 것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후회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부자는 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취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잃고 맙니다. 우리는 이 땅과 천국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왕국과 영원한 지옥이 존재함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15절). 사실 우리는 탐심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대신 "있어야 할 것들"이라는 표현을 즐겨 씁니다. 사람들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했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도 않았습다. 풍성한 소출은 그의 소유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연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자와 같이 선한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모두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소유가 풍성했지만

이 부자는 단지 이 땅에서의 부만 재산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재산에서 천국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밭에 소출이 '매우 풍성했다'라고 말합니다 (16절). 그의 밭은 최고의 수확을 냈습니다. 그의 부자는 성공했고 이로 인해 그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든지 언제나 위험 부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폭우가 내릴 때도 있지만 비가 전혀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부자는 언제나 위험합니다. 이 부자는 어쩌면 평안이라는 것을 거의 경험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재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전전긍긍하며 근심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 가야 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 특히 세상적인 것에 대한 시험에 늘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 가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에 있으나 장래에 있어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8,39).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희된 준비들

부자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한시적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고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풀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17-19절). 그가 속으로 생각한 것은 모두 "나의" 또는 "내가"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말하겠다. 나의, 나의, 나의, 모든 말이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 "내가"라는 말은 6번,

"나의"라는 말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에 있어서 문제점은 "나"라는 존재가 연개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약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나, 나라는 말 속에는 칭찬도 후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그의 성공이 그에게 더 많은 문제점을 가져다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주재할 수 없이 나누는 물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계획을 세우느라 너무 분주한 나머지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일에 자신의 시간을 모두 써 버리는 동안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결국 자신의 영혼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방이나 더 큰 곳을 찾는 데만 관심을 두었을 뿐 가난한 자들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다. 그가 준비한 모든 것과 그가 얻은 모든 것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불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어리석은 부자가 시간을 들어 풍요로운 모든 노력의 결과는 모두 헛수고로 돌아갔고, 썩어 없어질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 부자의 소망은 세상이라는 지평선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영혼아 여러 해 풀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19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였느냐" (20절). 사실 이 부자는 노후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안타깝게도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단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생각만 했을 뿐, 영원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그를 찾아오고 무덤은 입을 연 채 그를 향해 들어오려고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소유인 어리석은 자를 환영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가 남겨 놓은 모든 자치적이라고 친척들은 험한이 되어 서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쌓아 놓은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슬픈 일은 사람들이 그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에서의 노후 대책만을 세웁니다. 그러나 영생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심자기를 바라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자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재정적인 안정에서 오는 편안함과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슬픈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것, 내 것, 내 것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얻기를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척 가난합니다. 사탕하는 성도 어려운, 우리는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보화는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부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에 어떤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까? "내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영원으로 가는 티켓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보물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하늘에 진정된 부를 쌓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얼마만큼의 보화를 쌓아 두셨습니까? 영원에 대한 여러분의 계획은 얼마나 견고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하시는 선물입니다.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

성경 속의 여인들

수넬 여인 (열왕기하 4:8~37)



수넬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음식으로 공경하며 친절히 보살피고 있었습나다(8절). 그녀의 모습은 참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가 누구인지 잘 몰랐지만 엘리사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9절). 이처럼 수넬 여인은 친절하고 관대할 뿐 아니라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요청하기를,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시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10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무엇을 기대하고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11-13절). 그러나 공경을 받은 엘리사는 그녀를 위해서 무언가 해 주기를 원했습니다(14-16절).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는 그녀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들을 얻으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에 그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축복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녀의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17-20절).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에 대한 수넬 여인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에 눕힌 뒤 급히 엘리사를 모셔오도록 하였습니다(21-23절).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만난 수넬 여인은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24-26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 그녀는 어떻게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혼돈된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삶의 형편이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 순탄할 때나 역경일 때나 막론하고 주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걱장을 초월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넬 여인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27절). 그녀는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오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여인의 처지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엘리사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28절). 여인의 첫째 질문은 엘리사에게 그녀의 아들을 고쳐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인은 엘리사에게 자신의 요청과는 상관없이 엘리사가 스스로 그녀에게 아들을 얻으 것을 축복했던 것을 주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계시자에게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 그의 지팡이를 어떻게 다루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습니다(29절). 수넬 여인은 엘리사와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30절). 그녀는 자기의 아들을 되살릴 힘이 엘리사에게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32, 33절).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자 엘리사는 죽었던 소년의 몸이 따뜻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34-35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된 엘리사는 흥분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자 여러 시간 동안 죽었던 자에게 삶을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소생하였습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엘리사와 여호와께 감사하였습니다(36, 37절).

수넬 여인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면, 우리는 평화와 영생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창 18:14).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넬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살리셨으며 또한 그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살리실 것입니다(고전 6:14).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막 5:34).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기초한다는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고전 2:5).

(김성관 위임목사)

새가족부를 수료하여

나를 바꾸시는 주님의 손길

♥ 그동안 많은 일들과 시험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도와 주셔서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마음이 부족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십자가 안에 더 많이 깨지고 부서지겠습니다. (양미순)

♥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제 자신의 계획보다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더욱 차분해진 것 같고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송민진)

♥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항상 "가다 안 가다"를 반복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히 새가족부 성경공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정말 기쁩니다. 이제부터 절대로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김정남)

♥ 6개월 간의 새가족부에서의 시간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 동안 막연하게 알던 것들을 확실히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구원의 복음을 믿고 전하여 살겠습니다. (김진홍)

♥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제게 가장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주신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황민숙)

♥ 예전에 주님을 모르고 지낼 때는 항상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살았지만 지금은 평안과 감사가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김지현)

♥ 이전과는 달리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니 걱정이나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장정금)

♥ 저는 모태신앙임에도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죄인을 다시 불러 주셔서 안아 주시니 정말로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께서 저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원)

♥ 교회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이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일 아침이면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조영희)

♥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를 바꾸시는 주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더욱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천국을 향해 걸어 가겠습니다. (문연숙)

♥ 교회에 등록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 했는데 그 때 아기가 아파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힘들 때 가족처럼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이와 함께 예수님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서민정)

(정라: 편집실)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기를 소망하며

한 영혼이 천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지에서 팀원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떤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고 한 어린 초등학생을 만나게 하셔서 그 아이를 통해서 여덟 가정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죽을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삼 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 감사하게도 그들은 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큰 길에 나가 사람들에게 전도하였습니다. 열심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기에 힘쓰다 보니 잠시 시간도 있고 저녁이 되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고자 하는 소망과 기대로 이곳저곳을 돌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비된 심령을 만나게 하고 복음 전하는 기쁨과 감격도 허락하였으며, 한 영혼이 천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평생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잊지 않겠습니다.

문선옥(권사, 소망부)

자기부인과 기도

먼저 복음이 들어오지 못한 이 불모지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곳은 전도하는 것이 불법이었기에 비행기에 오르면서부터 '복음을 전하다 잡히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모두 주님을 깊이 신뢰하지 않았기에 시작된 것이었다. 다시 마음을 잡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해 달라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 팀은 축조 전도를 하였다. 각각 한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주님의 사람이 풍성히 일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예수님에 대해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나라의 정책 때문인지 우리 팀이 방문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들은 가장 먼저 집의 문을 닫고 문에 자물쇠를 채웠다. 열집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비책이었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찾더라도 남들의 눈을 피해 비밀한 장소로 찾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얼마나 안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회개했다. 귀국하기 하루 전 날 노정방도를 하였다. 먼저 그들을 만나 서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였다. 얼굴이 굳어지기도 하고 자신은 '알라'를 믿는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다 끝으로 돌리려고 하였다. 그들의 반응을 보며 또 한 번 나의 기도가 너무 약했음을 깨닫고 회개하였다.

비록 길 잃은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하지는 못 했지만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날 수 있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지 못한 그곳의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기도한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것과 복음이 각 세계에 전파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지 깨닫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석혜일(집사, 11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8월 7일(월) ~ 8월 15일(수)	1교구 6지역	김대용
8월 10일(목) ~ 8월 19일(토)	5교구 4지역	박준용
8월 11일(금) ~ 8월 19일(토)	12교구 2지역	김영록

지난 주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7월 24일(월) ~ 8월 1일(화)	9교구 5지역	동방용운
7월 24일(월) ~ 8월 1일(화)	외선부 2팀	조영구
7월 24일(월) ~ 8월 1일(화)	4교구 7지역	최민석
7월 24일(월) ~ 8월 1일(화)	16교구 8지역	김재호
7월 24일(월) ~ 8월 3일(수)	1교구 1지역	최세진
7월 24일(월) ~ 8월 2일(수)	16교구 1지역	김성수
7월 24일(월) ~ 8월 2일(수)	17교구 2지역	유재훈
7월 25일(화) ~ 8월 1일(화)	6교구 4지역	엄복섭
7월 25일(화) ~ 8월 1일(화)	17교구 4지역	이창우
7월 25일(화) ~ 8월 2일(수)	9교구 7지역	김연태
7월 25일(화) ~ 8월 2일(수)	10교구 6지역	김만호
7월 25일(화) ~ 8월 2일(수)	10교구 2지역	정영환
7월 26일(수) ~ 8월 4일(금)	4교구 11지역	이희우
7월 26일(수) ~ 8월 4일(금)	15교구 1지역	강석화
7월 26일(수) ~ 8월 5일(토)	8교구 1지역	김철남
7월 27일(목) ~ 8월 4일(금)	18교구 4지역	김홍기
7월 27일(목) ~ 8월 4일(금)	11교구 7지역	박천서
7월 29일(토) ~ 8월 4일(금)	할렐루야친당대	문경안
7월 29일(토) ~ 8월 5일(토)	청년1부 4팀	강선서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중등1부 1팀	진은배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중등1부 5팀	양한원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중등1부 6팀	정재영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중등1부 7팀	김기태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중등2부 3팀	김규식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중등2부 4팀	최영실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중등2부 5팀	정진교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중등2부 6팀	한흥연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중등2부 7팀	배종락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중등2부 8팀	장기락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중등2부 9팀	김남희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중등3부 9팀	심화민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중등3부 10팀	한 숙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중등3부 11팀	김동철
7월 31일(월) ~ 8월 5일(토)	고등부 8팀	백민호
7월 31일(월) ~ 8월 5일(토)	고등부 9팀	전진호
7월 31일(월) ~ 8월 5일(토)	고등부 10팀	이창희
7월 31일(월) ~ 8월 5일(토)	고등부 11팀	윤해균
7월 31일(월) ~ 8월 5일(토)	고등부 14팀	홍승길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청년1부 3팀	송한천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7월 31일(월) ~ 8월 8일(화)	사랑부 1팀	조영철	8월 1일(화) ~ 8월 8일(화)	11교구 4지역	정원근
7월 31일(월) ~ 8월 8일(화)	6교구 3지역	이병두	8월 1일(화) ~ 8월 8일(화)	14교구 6지역	박준용
7월 31일(월) ~ 8월 8일(화)	8교구 8지역	남용승	8월 1일(화) ~ 8월 10일(목)	5교구 1지역	김윤환
7월 31일(월) ~ 8월 9일(수)	7교구 5지역	윤병식	8월 2일(수) ~ 8월 9일(수)	예배다부 2팀	변창대
7월 31일(월) ~ 8월 9일(수)	13교구 4지역	임재봉	8월 2일(수) ~ 8월 10일(목)	2교구 4지역	유병수
7월 31일(월) ~ 8월 9일(수)	13교구 6지역	강진택	8월 3일(목) ~ 8월 12일(토)	7교구 3지역	박용기
8월 1일(화) ~ 8월 8일(화)	3교구 3지역	최종준			

십자가의 복음으로 풍성한 여름 성경학교



십자가 복음을 깨달으면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모태 신앙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천국처럼 느끼게 된 것은 어린 시절의 성경학교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시절에서는 여름에만 성경학교를 여는데 새벽 예배에도 빠지지 않으려고 애썼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깨달으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돌 지난 아기의 엄마가 되어 영아부 성경학교에 참석했습니다. 아들 다니엘은 말은 하지 못해도 찬양과 율동을 할 때면 몸을 움직이며 장단을 맞추고 신나게 박수를 치며, 예쁜 손을 모아 기도하고, 때때로 말মে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학교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은 저희 부모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전하는 예수님의 참 사랑'이란 주제를 통해서 복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시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우리에게 양육을 맡기신 다니엘의 청지기로서 이번 성경학교에서 받은 말씀을 아기와 함께 진전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심해 봅니다.

남궁영희 집사김다니엘 엄마, 영아부)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어요!



나는 여름 성경학교가 재미 있었다. 어머니와 떨어져 친구들과 함께 잠도 잤다. 일찍 일어나서 놀렀지만 그래도 꼭 참았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전도해야 한다고 하셨다. 나도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어"라고 말해야겠다. 이승주(유년부)

이번 성경학교는 기다려졌다. 친구들과 같이 자는 것도 좋았다.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건 가끔은 하기 싫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 찬양 드리는 것도 행복했다. 강효승(유년부)

선생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발을 씻겨 주실 때 눈물이 날 뻔했다. 천로역정에서의 지옥은 정말 무서웠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서 천국에 가야겠다. 정수연(유년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참 사랑

이번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십자가 복음으로 전하는 예수님의 참 사랑"이었습니다.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교회에서 하룻밤을 지는 1박 2일로 진행되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도 친숙한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렘했습니다. 우리는 주일부터 과별로 성경을 미리 준비해서 예수님의 참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이것을 믿는 우리는 은총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친구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저는 교회 아이들 중의 한 명으로 출연해서 찬송을 부르는 역할을 했는데 정말 재미있고 기뻐했습니다.

오후에는 교회 주변에서 전도지를 나눠 주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전 처음 하는 노방 전도와 약간 긴장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드렸습니다. 관심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모두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 생명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린아이여서 제 말을 못 믿는 건 아나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학원도 가야 하고 바쁜 방학이지만 아빠가 말한 하신 대로 "우선 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여름 성경학교에서 보낸 1박 2일은 참 즐겁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도해 주신 선생님들과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신 집사님들, 고맙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지은(초등부)

기도의 삼겹살



준수의 성경학교 일정과 겹친 몇 가지 스캐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다. "준수야, 성경학교 빠지면 안 될까?" "안 돼요. 선생님들이 좋으니까 꼭 오라고 했어요." 준수의 대답을 들으며 무리를 해서라도 참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막상 당일 아침이 되자 준수는 연일 계속된 나들이에 입안이 헐 정도로 피곤했는지 못 일어나고 있었다. 순간 "그냥 꼭 재울까?" 생각하며 "준수야, 오늘은 가지 말자"라고 했다. 그 때 옆에 있던 누나인 윤정이가 "엄마! 왜 그래요. 가야지 무슨 소리예요?" 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아이를 깨워 형, 누나와 같이 교회로 출출둥하였다.

교회에 도착해 보니 나의 심령은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었다.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온몸과 힘을 다해 준비해 섬겨 주시는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는가! 매년 성경학교는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자란 윤정이의 한 마디와 예배시간에 반청 부리고 안 듣는 것 같아도 선생님의 한 마디를 기억하는 준수의 모습을 보며 삼겹살(전 4:12)은 함께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확인하게 되었다. 어린이의 어린 자녀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삶의 어떤 순간에서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어린이로 자라가도록 초점을 맞출 때에 부모, 형제, 교사 모든 지체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실 줄을 확인한다.

박혜정 집사(김준수 엄마, 유치부)

교회 랑방 소망부 찬양대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시편 104:33).
우리는 삶 가운데서 천국을 얼마나 소망하며 살고 있을까? 늘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소망부 찬양대원들의 십자가의 은총이 넘치는 삶을 보았습니다.

소망부 찬양대는?

70여 명의 대원들로 구성된 소망부 찬양대는 기체부터 88세에 이르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전 국
을 위회서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장재복 은회 서리장사)

지휘자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급진 3월부터 소망부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성악을 전공했지만, 지휘는 처음이라 많이 망설였으나
주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동하고 있습니다. 저나 한 주 동안 각자 영성이 연금하고 외워 온
찬양대원들의 소리를 주님께 합해서 올려 드리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분들이 늘 겸손하
고 성실하게 따라와 주셔서 주님께 감사 드려며 감동하고 있습니다. (김희숙 집사, 지휘)

찬양대를 통한 찬양의 은혜는?

찬양을 외워서 불러야 하기 때문에 일 주일 동안 늘 부르며 찬양의 은혜를 받아요. 더욱더 찬송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특히 4부 파트로 찬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엔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새로 피아노까지 도입하고 연습을 하게 되었어요. (장정자 권사)

가사를 외우다 보니 제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가사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요. 언저 고되어서 은혜를 했지만 주님과과의 관계에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
요. 이 나이에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유은성 은회권사)

찬양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 제가 찬양대에 들어가 '기쁨'으로 찬양해요. 일 주일 동안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찬양을 부르니 이전보다 주님과 더 가까워짐을 느꼈어요. 찬양의 은혜로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았거든요. (김용순 은회권사)

부름 찬송이 정해지면 복사를 해서 냉장과 얹어 놓고, 또 외출할 때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찬
송을 부르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언젠가까지 반주자로,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했지만 이곳에서 더
욱 겸손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한영숙 은회권사)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찬송하며 살고 싶은 소망이 생겼어요. 더욱 강건한 가운데 주님께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장재복 은회 서리장사)

순간적인 신앙 생활에 빠져 있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자체가 담라지
를 경험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확신하게 되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 수 있
는 믿음을 구하게 되었어요. (장정자 권사)

'내가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속에서 다져 온 선교를 통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
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의 순수한 영혼들이 생각나서 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천국을 소
망하며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김용순 은회권사)

늘 제 앞에서 매도는 찬양이 있었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감의
기적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볼지나!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지요. 주님 부
르실 그날까지 찬송하며 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한영숙 은회권사)

찬양대를 위한 기도 제목은?

현재 남부 대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남부 대원이 필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할 기
하는 소망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장재복 은회 서리장사)

"오늘이 있는 자마다 언약의 영광을 찬양하여라"(시 150:6). 우리들이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찬양대를 통해서 지금부터 자연스럽게 훈련되어지거
를 소망합니다. (한영숙 전도사, 부지도)

거동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매주일 함께 모이는 이유는 오직 하나였
습니다. 그것은 모든 소망이 천국에 있으며, 이 은총을 주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때문이었습
니다. 특별히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부의 어르신들을 보며 노년의 야망이 생각났습니다. 항상 야망의
삶을 인도하셨던 주님의 은총이 소망부의 어르신들의 가슴속에 넘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젊은
소리는 내지 못하지만도 십자가로 풍성한 찬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순전히 주님의 은총임을 확실히 보
았습니다. 이분들이 끝까지 주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될기 기도합니다.

(반준실)

내 영혼의 주를 찬양



찬 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에 임재하신 주님!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느끼며 눈에 보이
는 모든 것과 접촉되어지는 수많은 사물들의 실재를 통해서 내주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소망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주어집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내 맘 함께 하소서." 주님이 나의 머릿속을 지배할 때 도대체 괴롭거
나 부담이 될 수 있겠는가? 세상의 헛된 것들 헛물켜고 살았던 생활들이 보잘 것 없고, 귀하게 느껴졌던
지난 날의 경험은 무모하게만 느껴질 뿐이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시절의 삶은 캄캄하고 외로운 불과
같다. 소중한 시간들을 그것들과 바꾸어 버리고 만 것 같다. 그러나 나의 그러한 시간에도 주님께서서는 나
를 보살피고 부르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나는 통탄의 회개와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 우리 주님
을 찬양한다. 그러한 주님이 찬양 속에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는 감사와 감격만 있을 뿐이다.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살리고
고", "세상의 영광은 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
여라." 말씀의 주가 나의 아버지요, 내가 영원하신 그분의 아들이니 세상의 어떤 영광이 이를 대신할 수
있겠는가? 주님! 알았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썩어질 장막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한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하늘의 기쁨을 소망하는 믿음에는 그 믿음의 소유함부터 승리의 삶인데, 찬양대원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까지 주셨으니 호ощ이 다하는 그날까지 찬양할 것입니다. 고난은 단지 더 큰 쓰임의 시작이며 새로운
연단의 메시지에 불과하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변화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믿는다. "내 맘의 주여
나의 소망되소서!" 아멘!

(선명환(집사, 팔월루아 찬양대))

♡ 새 · 가 · 족 · 을 · 완 · 성 · 합 · 니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146	이승희	8	장년1부	황희주(4)
2147	이정훈	8	종동2부	황희주(4)
2148	김자룡	19	청년1부	김충현(16)
2149	구지연	19	고등부	곽노경(1)
2150	김형원	19	고등부	곽노경(1)
2151	안진희	1	장년1부	류병희(1)
2152	김지정	1	청년2부	홍순애(1)
2153	구수나	19	대학부	송옥진(8)
2154	황일운	19	청년1부	이한원(19)
2155	황인덕	19	청년1부	심정례(18)
2156	오석석	8	청년1부	홍정복(6)
2157	성다려	19	청년1부	조비로(19)
2158	김지영	19	청년1부	심해민(10)
2159	이지형	19	청년1부	홍현주(19)
2160	김수정	19	대학부	김원규(1)
2161	이은혜	10	장년3부	서민준(5)
2162	유라	19	외선부	주바이도저(19)
2163	아로슬라비	19	외선부	우미도(19)
2164	사파르와	19	외선부	글노저(19)
2165	사사	19	외선부	글노저(19)

※ 중헌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5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8월 충현 기도의 창

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

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② 충현의 모든 청지기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드려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③ 2006년도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④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교회학교 위에 풍성히 내려주소서.

⑥ 모든 새가족들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을 안에서 살게 하소서.

⑦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추후복지관이 신자가 보은으로 우

영되게 하소서.

② 교회에 소환 깨달아오기 : 도산, 복개오 신

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7(월)	8(화)	9(수)	10(목)	11(금)	12(토)	13(주일)
--	------	------	------	-------	-------	-------	--------

예배당당 안내 (8/9-8/13)

날짜	예매	설 교	사 회	기 도	찬 양
8/9	수요 I	믿음과 고난 (말 1:27-30) 이성진 목사	양재송	권경희	주의 주심 화평 (호산나 찬양대)
8/10	수요 II	열방의 선지자 (렘 1:4-10) 이재영 목사	정현민	유아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실로암 찬양대)
8/11	금요일교회	양재송 목사	안지현		별명 찬송가집장 2/교구
8/13	주일 I	중요한 것을 잊지 말라 (눅 12:15-20) 이정훈 목사	김태석	박용국	(예배 전 찬양)
8/13	주일 II	중요한 것을 잊지 말라 (눅 12:15-20) 류병희 목사	고광환	한윤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 나의 모든 정보와(남부교회 오케스트라)
8/13	주일 III	중요한 것을 잊지 말라 (눅 12:15-20) 정현민 목사	이국근	진경숙	천지에 있는 이름 중 / 소와 노래 / 경성교회 성악회 찬양(호산나 찬양대)
8/13	주일 IV	중요한 것을 잊지 말라 (눅 12:15-20) 정현민 목사	이종대	김진성	주 예수 그리스도 나 귀한 것 없네 / 사랑 / 아연 오케스트라
8/13	주일 V	중요한 것을 잊지 말라 (눅 12:15-20) 양재송 목사	이창수	정성원	나 주를 믿는 피리디나 / 사랑 / 오케스트라 연주주
8/13	주일양막	예수 믿는 도 (말 24:21-27) 윤우진 목사	김익찬	최정란	하나수 주를 믿는 / 만민으로 찬양 / 아현 찬양대

섬 · 기 · 는 · 분 · 들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II	오전 9:00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거리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일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00

집 회	시 간	차 량
화요일회	오전 11:00	오전 10:00 분당 앞 출발
금요일회	저녁 11:00	금요일회 후 분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8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8부 예배는 그리스말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및 통속 한문입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분	시간	장 소
영 아 부	1 오전 9:00 11 오전 11:00	신교관 1층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지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분	시 간	장 소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1부	오후 12:15	갈림길 홀
2부	오후 11:00	북지관 지하1층
다부	오전 9:00(학생) 오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다부	(주)오전 8:30~오후 5:10 (단) 저녁 7:00~적 9:30	교육관 110호
양육부	오후 12:15	배 다 니 홀
연인집	주요교육	교육관 107호
연인교육	주요교육	출현철 복지관
연인교부	오전 11:00	애 메 홀

■ 시무장으로

김의철	김은호	노영현	이병
남순우	김종구	최두진	이창
강광남	이종식	임우진	전홍
이정우	김단홍	한두진	김영
원윤철	이형수	이정우	홍의
최덕택	이계인	박영민	이정
박용규	전명옥	조준환	배준
이성호	최지훈	노영현	박철
신상수	조세훈	강정형	김영
김정환	김승곤	함정국	윤식
안석현	김단근	김영국	김종
김은철	전학대	김진국	전계
장승주	전은배	서영익	구재
최지용	신진근	유기재	박상
신광철			

■ 부목사

이종대 12.27	정현민 12.27	박기근 12.27	류병호 12.27	김영환 12.27
이국근 12.27	인창덕 12.27	나광영 12.27	정진호 12.27	고광환 12.27
최준현 12.27	김학찬 12.27	조근 12.27	임원덕 12.27	이정호 12.27
류원철 12.27	하종철 12.27	안지현 12.27	정승진 12.27	양재호 12.27
이성진 12.27	최성규 12.27	이재형 12.27	이경준 12.27	이창호 12.27
김준희 12.27	윤수진 12.27	황진성 12.27	이정훈 12.27	김태현 12.27
유재진 12.27	강영구 12.27	천성원 12.27	김원규 12.27	

■ 전철도사

윤은주 12.27	한영준 12.27	김연식 12.27	홍순재 12.27	이옥주 12.27
김말자 12.27	인태순 12.27	김정연 12.27	강덕림 12.27	최문순 12.27
천은희 12.27	김경자 12.27	김경희 12.27	이복순A 12.27	류원희 12.27
한일성 12.27	임태주 12.27	강영희 12.27	옥미자 12.27	이복순B 12.27
강호주 12.27	전영희 12.27	이혜숙 12.27		

■ 전안검독 감리구

전철지하차 서운성	김원섭
전철검독차 손요원	
전 철 소 사 김진우	

■ 전입연주자 장영희